

2022-2학기 TU Graz 교환학생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TU Graz로 2022-2학기에 파견되었던 교환학생입니다. 이 미 타 후기에 유익한 내용이 많은 만큼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동기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던 것은 한국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과대학 협정교 목록에서 치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가를 골랐는데, 이 중 2지망인 오스트리아의 TU Graz로 파견되었습니다.

2. 생활

전반적으로 그라츠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거의 항상 고층 건물들이 들어찬 도시에서 살았던 입장에서는 사방이 넓고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트램 및 버스를 통한 교통이 잘 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마트나 상점 등 필요한 건 전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 자체가 깨끗합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다 보니 치안이 좋고 평화롭습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가장 새로웠던 점은 기차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이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행정 처리에 예약이 필요한 것, 계좌이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새로웠습니다.

언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여 학생들과 교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직원이나 버스 운전자 등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안내판이나 메뉴판 등에 독일어만 적혀 있을 때가 많아 예상했던 것보다는 번거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될 일들이었지만, 독일어를 알아야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결제할 때 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비상용 현금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3. 여행

여러 후기에서 언급되었듯 오스트리아는 여행 다니기에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10월 중반부터는 거의 매주 여행을 갔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갔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을 즉흥적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여행 가기가 쉬운 곳입니다. 기차나 버스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등으로 쉽게 갈 수 있고, 오스트리아 내에도 할슈타트, 비엔나 등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 학기의 경우 성탄절 전후를 활용하면 연휴 특유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장기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 친구의 도시에서 현지인들과 새해를 맞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라츠의 유일한 단점은 비행기로 여행할 경우의 비용인데, 빈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때마다 편도 약 3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기차/버스 표값이 발생합니다.

교환학생 중에는 Erasmus 학생의 비중이 컸는데, 원래부터 유럽에 사는 친구들이라 보니 한국인들만큼 여행에 대한 열망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을 한국인 및 비유럽권 친구들과 갔었지만, Erasmus 친구들에게도 제가 먼저 주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같이 가자고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4. 기숙사

기숙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 후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기숙사업체인 OeAD의 Neubaugasse라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이전의 교환학생 후기에 OeAD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아 모험을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Neubaugasse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자면

1. Neubaugasse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바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Neubaugasse의 장점으로는 기차역 및 마트와 가까운 좋은 위치, 5-6인 공용 플랫폼과 잦은 파티로 인한 친구를 사귀기에 용이한 환경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골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방의 위치에 따라 인근 클럽에서의 소음이 그대로 들릴 수 있다는 것, 방음이 아예 안 되는 방이 존재한다는 것, 기숙사 및 플랫폼의 개념에 관한 큰 문화 차이 등이 있습니다. 만약 Inffeldgasse에서 열리는 수업을 들으신다면 캠퍼스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것 또한 단점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는데, 혹시라도 Neubaugasse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Neubaugasse에 거주하게 된다면, OeAD측에 클럽과 붙어있지 않은, 부역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플랫폼, 그 중에서도 부역과 최대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방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느 기숙사에서든 조금이라도 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각 새로운 방을 알아보고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다른 기숙사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어차피 매주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요청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은 귀국 전 마지막 달에 후회했습니다.

기숙사의 종류는 조용한 Moserhofgasse, 시설이 좋은 Milestone 등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기숙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타지에서 집이라고 부를 곳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후기들을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학업 및 강의

TU Graz의 강의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진 것은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도중이라도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교수님의 질문에 활발하게 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분위기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특히 토론을 많이 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매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 수업마다 조별 토의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형 강의를 하나 수강하였는데, 낯선 분위기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교환학생을 왔기 때문어야말로 경험할 수 있는 강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ral test가 많다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구두 시험을 본 경험이 없어서 막연히 필기 시험보다는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과 1대 1로 앉아 질문에 답하다 보니 단순한 점수로 드러나는 것보다 학생이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를 수강할지에 관한 조언을 드리자면, Studo라는 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학생들이 시간표 등을 볼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수강신청을 하면 Studo 앱의 My Courses란에 강의 목록이 나타나는데, 각 과목별로 Studo Wiki와 Studo Chat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수업과 시험의 방식 및 난이도에 관한 후기, 이전 시험 문제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어떤 수업을 들을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TUGraz Online의 Courses란에서는 Exam Information을 통해 과목의 이전 학기 성적 통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라츠로 교환학생을 간 것은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 중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혼자 생활하며 답답한 순간이 아예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사회를 대학생의 입장에서 몸소 경험할 수 있었고, 귀중한 인연도 많이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딘가를 떠나며 진심으로 아쉽다고 느끼게 만든 곳은 그라츠가 유일할 정도로 즐겁게 지냈

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교환학생들의 사회 속에서만 생활하고 오스트리아 사회의 현지인들과는 많이 교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정작 오스트리아인 친구는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ESN에서 만난 Buddy와 더 친해졌다면 좋았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제 카카오톡 및 SNU메일 등의 연락처로 연락 주신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